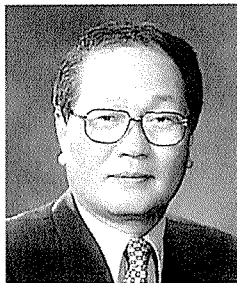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ARCASIA FORUM 10을 개최하면서

KIRA will lead 21st century's New Architecture Age

이외구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Lee Eui-Koo



친애하는 회원여러분 !

경제위기로 인한 힘든 여건속에서 건축문화의 창달과 협회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회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

우리 건축은 지난 한세기 역사의 격랑 속에서 경제 고도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경제환란은 우리 건축계에 힘겨운 고통을 가져다 주었고 생존차원의 미래에 대한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국제적으로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해 건축설계분야 또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국가간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본인이 회장으로 취임하여 눈앞에 산재한 각종 현안들, 특히 현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개혁정책에 따른 건축 및 건축사법 개정작업 등으로 동분서주하는 사이 어느덧 반년이 지나, 이제서야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협회는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보다 뜻깊은 범국민적 건축홍보활동을 준비하던중 뜻하지 않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는 "씨랜드" 화재참사로 23명의 어린 싹들을 희생시킨 불행한 사고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 시대 건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인 건축사로서 이 불행한 사태에 대해 무어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책임을 통감하며 이와같은 위법부실행위가 두 번다시 이 땅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원인의 근원적 제거노력은 물론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지속적인 개혁과 자기성찰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건축사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

그동안 협회에서는 회원의 정서를 반영하여 건축사제도의 제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무처직원의 35%를 감원하는 등 작고 기능이 강화된 모습으로 획기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하였고, 국제적으로 UIA 등 국제기구에서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문제가 큰 이슈가 됨에따라 제10차 아카시아포럼을 9. 12~17 기간중 서울에 유치해 아시아지역 16개국은 물론 세계 건축계의 지도자 및 석학들과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을 주제로한 이번 포럼은 학술적 성과 뿐만 아니라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국제사회에 한국건축의 위상을 알리고 우리 건축사들의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의미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특히 최근 UIA북경대회에서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국제표준안이 정식채택됨에 따라 이에따른 대안 및 대책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국내 건축교육제도 및 인증제도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 및 제도화하기 위한 공청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

이제 21세기 새천년을 앞두고 우리 사회는 전 분야에 걸쳐 구조개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 또한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를 비롯한 우리 건축계도 변화를 서두르지 않고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인과 현 집행부는, 협회가 건축계 구조 개혁의 중심에 서서 21세기 선진한국건축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협회의 재정자립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장 취임당시 밝힌 바 있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 각종 수익사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협회의 재정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회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오는 7월말경 개관을 목표로 현재 구조조정으로 여유공간이 확보된 회관 1층을 전시관으로 활용해 회원간의 정보교환은 물론 임대수익도 얻을 수 있도록 시공중에 있습니다.

둘째, 회원에 대한 서비스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회원을 위한 존재인 만큼 회원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건축인허가업무 전산화에 대비해서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회원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협회의 정보가 신속하게 회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회원사에 E-Mail 계정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셋째, 설계·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각종 보증과 배상문제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시장구조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고, 모든 거래에 있어 공급자는 확고한 책임의식하에 수요자만족을 위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건설관련단체를 비롯한 대다수 사업단체들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공제사업을 통해 자기 회원을 보호하고 대외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협회도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따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각종 보증과 배상문제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제사업이 조속히 실현되어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넷째, 자율시장경쟁원리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앞서 협회는 건축법령개정 과정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한편 회원여러분의 업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신고범위를 축소토록 하였고, 조사검사 확인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토록 반영하였습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 조형창작활동에 걸림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법제도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문자격사단체의 '회원가입 임의화' 및 '복수단체 설립 허용'을 골자로한 법률개정 추진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이 사안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도서신고조항과 더불어 일단 그 시행시기를 2000년말까지 유보키로 정부와 합의돼있는 상태입니다만 협회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련 전문자격사단체들과 연대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것입니다.

또 올해초 건축사보수기준이 갑자기 폐지됨에 따라 건축사회원은 물론 발주처 등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원의 설계비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의 사례 등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

우리에게는 불모에서 기적을 일구어 낸 강한 저력이 있습니다. 그 저력을 되살려 오늘 우리가 겪고있는 고통의 순간을 기회로 만들어 다시한번 기적의 신화를 일구어 냅시다.

회원 여러분의 힘찬 분발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다가올 21세기가 한국건축이 새롭게 거듭나는 새천년이 되도록, 7천여 전회원이 화합해 이 땅에 건실한 건축문화의 뿌리를 내리고 건축사의 위상을 바로 세웁시다 !

모든 하시는 일들을 뜻하신대로 성취하시고 회원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이만 인사에 대신합니다.